We need to de- alienate time: reconnect clock time to its sources and recognise its created machine character. As such, concern with the multiple time dimensions of our lives is no mere theoretical, academic exercise; rather, it is a strategy for living.

우리는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 시간을 소스에 다시 연결하고 그 소스가 만든 기계특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다중 시간 차원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이론적, 학문적 운동이 아니라, 생활 전략입니다.

Almost a hundred years ago,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imagined that by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we in the West would only have to work three hours a day to satisfy all our needs. He anticipated that the constant growth of productivity resulting from technical progress would eventually solve the economic problem of supplying humanity’s material needs at a fraction of the existing work effort. The abundance of time thus released, Keynes hoped, would lead to a moment when the spontaneous, joyful attitude to life then confined to artists and free spirits was diffused throughout society as a whole.

거의 100년 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20세기 초까지 서양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에 세 시간만 일하면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의 지속적인 성장이 결국 인류의 물질적 필요를 기존의 노동 노력의 일부분으로 공급해야 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풀려난 시간의 풍부함은 예술가와 자유로운 영혼에 국한된 삶에 대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태도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Yet the reverse seems to be true. Machines have not liberated us from work in the way Keynes predicted. The unparalleled velocity of computerization, telecommunications, and transport, which was expected to free up human time, has paradoxically been accompanied by a growing sense of time pressure. Rather than inhabiting a world in which time is abundant, everyday life seems more rushed. Although the details of time scarcity vary substantially across socioeconomic groups, as a culture we have a shared experience of temporal impoverishment. This is the conundrum that I have been exploring, that we live in an acceleration society in which technological acceleration produces not more leisure and downtime, but in fact an ever- faster pace of life.

하지만 그 반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케인즈가 예측한 방식으로는 기계들이 우리를 일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자유롭게 할 것으로 기대됐던 컴퓨터화, 통신, 교통의 비할 데 없는 속도는 역설적으로 시간적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일상생활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회경제적 그룹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문화로서 우리는 시간적 빈곤에 대한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탐구해 온 난제입니다. 우리는 기술 가속화가 더 많은 여가와 다운타임이 아닌, 사실 더 빠른 삶의 속도를 만들어 내는 가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Here, I am interested in how we can make more of time. It is not literally possible to make time in the sense of adding another hour to the day. Rather,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fraught and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time is the concept of temporal sovereignty, the ability to choose how you allocate your time. I have argued that having discretionary control or autonomy over your time lies at the core of some positive notions of freedom. It is a significant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and well- being. The proliferation of hyperefficient ICTs that should help us take control of time, seem instead to control us. As in the classic Frankenstein myth, it is often lamented that we have lost control over the machines to which we gave birth. We wonder whether a faster life, replete with gizmos, is necessarily a better life when the trade- off between time and money seems to turn every hour into the rush hour.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하루를 한 시간 더 늘린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시간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술과 시간 사이의 어렵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는 시간 주권의 개념, 즉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의 핵심이 시간에 대한 재량적 통제나 자율성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삶의 만족과 웰빙의 중요한 척도이다. 시간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율성이 높은 ICT의 확산은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전적인 프랑켄슈타인 신화에서처럼, 우리가 낳은 기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 사이의 절충이 매 시간 러시아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 기즈모스로 가득 찬 더 빠른 삶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인지 궁금합니다.

Certainly it is hard to disentangle the profound soci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our lifetime from the closely interconnected transformations in technological systems. However, it is only by examining the acceleration society thesis in some forensic detail that we can identify which aspects of life are accelerating, which are slowing down, and for whom. My social shaping framework has undermined the notion that the acceleration of work, parenting, and leisure is directly driven by technology. In tandem with technological change, I have shown that major shifts in the nature of work, the composition of families, ideas about parenting, and patterns of consumption have all contributed to our sense that the world is moving faster than hitherto.

확실히 우리의 일생에 일어났던 심오한 사회적 변화들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기술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속사회논문을 법의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삶의 어떤 측면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사회적 형질 체계는 일, 육아, 여가의 가속화가 바로 기술에 의해 추진된다는 개념을 손상시켰습니다. 기술적 변화와 함께, 저는 일의 성격, 가족의 구성, 육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소비 패턴의 주요한 변화들이 모두 세계가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의 감각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The experience of time pressure, or harriedness, then, is not simply a function of machine speed. It is therefore not amenable to resolution by means of a digital detox diet: “periodically shut down the electronic prostheses dictating our worlds and lives. . . . Shut off the cell phone; ignore e- mail; disable the answering machine and caller ID.”2 In any event, I do not subscribe to the nostalgia for a more natural, less technologically suffused past that some advocates for slow time champion. Rather, returning to Donna Haraway, I want to embrace the emancipatory potential of technoscience to create new meanings and new world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its chief critic.

시간 압력, 즉 건조함의 경험은 단순히 기계 속도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디톡스 다이어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와 삶을 지시하는 전자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차단합니다. . 휴대폰을 끄고, 이메일을 무시하고, 응답기와 발신자 ID를 비활성화하세요."2 어떤 경우에도, 저는 더 자연스럽고 덜 기술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향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슬로 타임 챔피언을 옹호하는 일부 지지자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오히려 도나 해러웨이로 돌아가, 저는 과학기술의 해방 잠재력을 수용하여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동시에 그것의 최고 비평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The design of our devices and the material infrastructure we inhabit reflects, as much as shapes,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It embodies the dominant engineering approach to time saving and time ordering, a particular conception of efficiency. Likewise, the promises and cultural imaginaries of a technological future populated with robots and autonomous software agents project limited visions of a good society. Opening up the processes of technical innovation to encompass a broader range of societal realities and concerns is the only way to generate new devices for new times.

우리의 기기 설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기반 시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형태만큼이나 반영합니다. 시간 절약과 시간 순서에 대한 지배적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 즉 효율성에 대한 특정 개념을 구체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과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 가득한 미래의 기술적 약속과 문화적 상상력은 좋은 사회의 제한된 비전을 투영합니다. 기술 혁신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현실과 우려를 포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Contesting the contemporary time culture, then, cannot be thought outside of and separately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vice versa. We make sense of and operate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machines of our making. And while instrumental time is built into these material things, there is a complex dialectic whereby increased technical speed can simultaneously provoke new slowed timescapes.

그렇다면, 현대 시간 문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술적 발전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기계와 함께 세상을 이해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는 기악 시간이 내장되어 있지만, 기술 속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느린 타임케이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복잡한 변증법이 있습니다.

In this final chapter, I want to remind you, the reader, of the diverse ways in which technology reconfigures time, and gesture toward some possible directions for making more of time. There are two broad aspects to this time quest. Both involve shifting the emphasis away from how digital devices colonize our time to a more political orientation based on how time is allocated and how it is valued. The first issue is the familiar one of reducing working hours in favor of leisure time. This terrain has become harder to navigate as ICTs dissolve the boundaries between home and work. The second aspect is somewhat speculative, and involves examining whether we can alter the texture and tempo of life and what role technologies might play in this. I will consider these in turn.

이 마지막 장에서, 저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기술이 시간을 재구축하고 시간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스처를 취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퀘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시간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에서 시간 할당 방식과 가치에 기반한 보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강조점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여가 시간에 유리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익숙한 문제이다. ICT가 가정과 직장 사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 지형은 항해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다소 추측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질감과 속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차례대로 고려해 볼게요.

Reformulating Working Time

A young colleague of mine mentioned that he was using a time management app in order to use his time more efficiently. Apparently the smartphone application enables you to track exactly what you do with every minute of the day. As far as I know, he is not signed up to the quantified self movement, whose members use personal tracking technologies to monitor their every move.It hardly needs saying that this form of self- auditing is a highly individualized response to collective problems, but for him, the latest devices are a powerful resource that enables him to take control of time. Such apps are based on the well- worn time- management belief in the unlimited virtues of acceleration, that we should do everything faster. In other words, it reduces all time to a standard metric. Wasting time is bad and we should maximize our productivity.

작업 시간을 새로 고치기

제 젊은 동료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 관리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아하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하루의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개인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정량화된 자기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이러한 형태의 자기 감사는 집단 문제에 대해 개인화된 고도의 대응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 최신 장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앱은 가속의 무한한 덕목인 우리가 모든 것을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잘 닳은 시간 관리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모든 시간을 표준 메트릭으로 줄입니다. 시간 낭비는 나쁘고 우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How we use our time is fundamentally affected by the temporal parameters of work. Yet there is nothing natural or inevitable about the way we work. As we saw in chapter 2, the idea that labor is measured and regulated by linear clock time is a relatively recent feature of industrial societies. The quest for maximum speed and efficiency, the disciplined and frugal use of time, only became hegemonic in a market economy where time is money. Fewer workers clock in and out of their jobs these days, but the logic of industrial time still ticks away, shaping how we understand our lives.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근본적으로 일의 시간적 매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는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없습니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노동은 선형 시계 시간에 의해 측정되고 규제된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의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최대한의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 단련되고 검소한 시간의 사용은 시간이 돈인 시장경제에서 패권주의로 변했을 뿐입니다. 요즘은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지만, 산업 시간의 논리는 여전히 간지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t one level, the most straightforward way to alleviate time pressure would be to reduce working hours. We only need to remind ourselves of the long, grinding working hours of previous eras to see how far we have come. Hours of work per person fell rapidly from 1870 to 1930, and Keynes assumed that this fall would continu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eight- hour day and the five- day week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a landmark achievement of twentieth- century social democracy.

한 수준에서, 시간 압박을 완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기 위해 지난 시대의 길고 분쇄된 근무 시간을 상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1인당 노동시간은 1870년에서 1930년까지 급격히 감소했고 케인즈는 이번 가을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8시간과 주 5일이라는 표준이 확립된 것은 20세기 사회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성과이다.

However, this trend to shorter working hours has stalled and, for some, it has gone into reverse. In How Much Is Enough?, Robert and Edward Skidelsky take up Keynes’s challenge and puzzle over why: “we in the rich world are four or five times better off on average that we were in 1930, but our average hours of work have fallen by only a fifth since then.”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러한 추세는 정체되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면 충분할까?'에서, 로버트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는 케인즈의 도전과 그 이유에 대해 퍼즐을 맞춥니다: "우리는 부유한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1930년에 비해 네다섯 배나 더 나아졌지만, 우리의 평균 근무 시간은 그 이후로 겨우 5분의 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Their explanation for the continuation of long working hours is twofold: a capitalist economy gives employers the power to dictate hours and terms of work, and such an economy inflames our insatiable desire for consumption goods. At its root, however, our addiction to work and hyperconsumption is due to the disappearance from public discussion of any idea of the good life in which leisure would be valued for its own sake. The sociologist Juliet Schor similarly puts a new allocation of time at the centre of Plenitude: The New Economics of True Wealth.5 Like the authors above, she rails against the long- hours culture, limitless growth, and overconsumption. According to Schor, we need to revalue well- being, as millions of Americans have lost control over the basic rhythm of their daily lives: “they work too much, eat too quickly, socialize too little, drive and sit in traffic for too many hours, don’t get enough sleep, and feel harried too much of the time.”

긴 노동 시간의 지속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두 가지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고용주들에게 시간과 노동 조건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는 소비재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욕구를 격화시킨다. 하지만, 그 근저에 있어서, 우리의 일에 대한 중독과 과잉 소비는, 여가가 그 자체를 위해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공적인 논의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줄리엣 쇼르도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시간 배분을 플레니티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새로운 경제.5 위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문화, 무한한 성장, 과소비를 극복합니다. 쇼르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상 생활의 기본 리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빨리 먹고, 너무 적게 어울리고, 운전을 하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교통 체증에 앉아 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괴롭다고 느낍니다."

Such arguments for reducing the incentive to work are based on the average number of hours people work. The authors are well aware of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the work rich/time poor and those with few or no hours of work. Indeed, they are motivated by a concern with a fairer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ending the divide between those who are compelled to work longer than they want, and those who cannot get enough work. Nonetheless, their general point stands: the culture of today’s opulent societies is more harried, not more leisurely.

근로 장려금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주장은 평균 근로 시간에 근거합니다. 저자들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 받는 사람들과 충분한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끝내는 더 공평한 노동 시간의 분배에 대한 우려에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요점은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회의 문화는 더 거칠고, 더 여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Both books reflect a renewed interest in the politics of working time.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is, as my own introduction to the issue was via earlier leftist arguments for a leisure society based on affluence. By contrast, current critiques of endless growth are inflected by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need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nstead of the socialist glorification of work as the key to collegiality, solidarity and democracy, these authors question our willingness to dedicate ourselves to a life of relentless work. In doing so, they recall ideas of leisure advocated not only by Keynes and his contemporary, the philosopher Bertrand Russell in his essay In Praise of Idleness (1932), but earlier by Marx’s son- in- law Paul Lafargue in The Right to be Lazy (1883). Unfortunately, in common with their predecessors, this vision of a progressive politics of time seems only able to invoke a peculiarly bourgeois and suburban ideal of home and family life.

두 책 모두 노동시간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소개한 것은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레저 사회를 위한 이전의 좌익적 주장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한 성장에 대한 현재의 비판은 경기 침체와 환경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 의해 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 노동이 연대, 연대, 민주주의의 열쇠라는 사회주의적인 미화 대신에 우리 자신을 가차없는 노동의 삶에 헌신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케인즈와 그의 현대인, 철학자 베르트랑 러셀이 주창한 레저에 대한 생각을 그의 에세이 "유일함의 찬미"(1932년)에서뿐만 아니라, 일찍이 마르크스의 아들 폴 라파르그가 < 게으름뱅이 권리>(1883년)에서 주창했던 레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전임자들과 공통적으로, 시간의 진보적인 정치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가정과 가정생활이라는 독특한 부르주아적이고 교외적인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Missing from these attempts to reformulate working hours is any recognition of the gender dynamics embedded in how we think about time and work. A fair distribution of work would need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different patterns of employment currently found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unpaid work within households. While the authors above correctly criticize the framing of time in terms of productivity growth for its own sake, they do not question the differential worth accorded to the public use of time spent in paid work, compared to private domestic labor. Kathi Weeks reminds us that the Marxist productivist paradigm undervalued and rendered invisible the labor time of unwaged housework, caring, and emotional work. A feminist time movement “should attend to the whole of the working day by, for example, insisting that estimates of the socially necessary domestic labor time of individuals be included in both calculations of working time and proposals for its reduction."

노동시간을 개혁하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누락된 것은 시간과 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내재된 성역학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정한 노동 분배는 현재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무급 노동의 불공평한 분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저자들은 생산성 증가의 관점에서 시간의 프레임을 그 자체를 위해 올바르게 비판하지만, 그들은 민간 가사 노동과 비교하여 유급 노동에서 소비되는 시간의 공공 사용에 따른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Kathi Weeks는 마르크스주의 생산주의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보살핌, 감정노동의 노동시간을 저평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페미니스트 시간 운동은 "예를 들어 개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내 노동 시간의 추정치를 근로 시간 계산과 그 단축 제안 모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동 일 전체를 준수해야 한다.

It is precisely this combination of paid and unpaid work that makes time poverty so widespread among working women. As I have already elaborated, a major cause of time pressure is the growth of dual- earner households, which supply more working hours to the labor market than ever befor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intensified expectations of parenting, mothers in full- time employment are particularly busy juggling the conflicting demands of work, family, and leisure.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 시간적 빈곤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유급과 무급 일의 조합입니다. 제가 이미 상세히 설명했듯이, 시간 압박의 주요 원인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노동시간을 공급하는 맞벌이 가구의 성장입니다. 특히 육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규직에 종사하는 엄마들은 특히 일과 가정, 여가의 상반된 요구를 곡예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This is not only a matter of the length or duration of time. Caring and attentiveness cannot be reduced to linear time as though they involve a sequence of tasks that in principle could be delegated to machines. What is colloquially referred to as “quality time,” or being temporally present with children, requires a cadence that is not subject to acceleration. Just as one cannot ask an orchestra to play twice as fast as the score requires, the character or intensity of giving and receiving time contributes to the experience. For example, we have seen that women’s leisure time is “less leisurely” than men’s, as women are more likely to combine leisure with looking after children. What presents itself in public as a discussion about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conceals the ways in which timescapes are still differentiated along sex- specific lines.

이것은 단지 기간이나 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계에 위임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을 수반하는 것처럼 배려와 주의력을 선형 시간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구어적으로 "양질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숙성을 필요로 합니다. 오케스트라에게 점수에 필요한 2배 빠른 연주를 요구할 수 없듯이 시간을 주고 받는 성격이나 강렬함이 경험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여가시간은 여가활동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가롭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로서 공공장소에서 제시되는 것은 시간경관이 성별에 따라 여전히 차별화되는 방식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However, even this critique of the gendered nature of work does not go far enough. Attempts to revalue domestic labor still operate as i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can be clearly delineated. Technology barely figures in any of these discussions about the politics of time, except as an external factor that eats into leisure. But the pervasiveness of ICTs into every aspect of our lives poses the profound question of whether the dichotomy between work and personal time still holds in a digital age. This issue is at the core of the concerns that I expand on below.

하지만, 심지어 이 권태로운 일의 본질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멀리 가지 않습니다. 국내 노동력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시간의 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서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가를 잠식하는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ICT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것은 일과 개인 시간의 이분법이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래에서 확장하는 고민의 핵심입니다.

Work- Life Articulation

We cannot have a serious discussion about working time today without interrogating the way that ICTs confound the distinction between “my time” and “work time.” Just as the standard five- day work week has been heavily eroded, so too have the time and place of work. Whereas the old industrial clock regulated our lives in discrete blocks of time and space, with the separate spheres of public and private life, the constant connectivity and global reach of mobile, digital technologies erase time zones and specific work places. The traditional time/space of the week and weekend and their characteristic social relations are now porous as people increasingly work, play, consume, and interact anywhere, anytime.

일-삶의 굴절입니다.

ICT가 "내 시간"과 "근무 시간"의 구분을 혼동하는 방식을 질문하지 않고는 오늘날의 근무 시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표준 주5일 근무제가 많이 침식된 것처럼, 시간과 근무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산업 시계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된 블록에서 공공과 개인 생활의 별도 영역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반면, 모바일,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연결성과 범세계적인 도달 범위는 시간대와 특정 작업 장소를 지웁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하고, 놀고, 소비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그 주와 주말의 전통적인 시간/공간과 그들의 특징적인 사회적 관계는 이제 다공성입니다.

Throughout the book I have argued that ICTs create a multiplicity of temporalities and modes of everyday living, as people craft new understandings of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 to others. Time cannot be thought of as an abstraction, divorced from a socially situated materiality and embodiment. We make and measure time with and through instruments, tools, and techniques. But it does not follow that accelerating technologies inevitably hasten the pace of all social domains. The way artifacts evolve in relation to time practices crucially depends on how they become embedded in our institutions and the vicissitudes of ordinary life.

이 책을 통해 저는 ICT가 다양한 시간적 요소와 일상 생활의 방식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물질성과 구체화로부터 분리된 추상화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기, 도구, 기법을 통해 시간을 만들고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가속화가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 영역의 속도를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관행과 관련하여 유물이 진화하는 방법은 유물이 어떻게 우리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지와 일상 생활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The very same machines that can make us feel harried also free up time, allowing for much greater autonomy, flexibility, and versatility in how we organize human affairs. Recall our discussion of the smartphone, the quintessential time- space compression mechanism. Not only does it both save and consume time, it also transforms linear, sequential timescapes, and all this simultaneously. I have argued that the experience of harriedness takes a variety of forms, depending on which aspect of temporality is being squeezed. Problems of temporal disorganization, the difficulty of coordinating shared social practices with others, loom large with the growth of dual- earner households.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people have actively embraced and appropriated cell phones in order to microcoordinate and synchronize their multifarious activities. By softening schedules and making time more fluid, these devices offer unique techniques for alleviating this aspect of time pressure.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계들은 또한 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우리가 인간사정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자율성, 유연성, 다재다능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 논의했던 시간-공간 압축 메커니즘을 상기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고 소비할 뿐만 아니라 선형, 순차적 시간 범위도 동시에 변환합니다. 저는 일시성의 어떤 측면이 쥐어짜는가에 따라 해고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시적 분열의 문제들,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 사회적 관행을 조정하는 것의 어려움은 이중 소득자 가구의 성장과 함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마이크로 조정하고 동기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치는 스케줄을 부드럽게 하고 시간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어 이러한 시간 압력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Indeed, I have debunked the notion that we have all become cyberserfs, technologically tethered workers with no control over our own lives. In chapter 4 I considered the complex entanglement of contemporary work practices, working time, and the materiality of technical artifacts. I showed that neither the smartphone nor even the sheer volume of e- mail traffic drives the speed of work. People overloaded with work reach for their electronic gadgets in an attempt to relieve the pressure that the devices magnify but do not in themselves cause.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얽매인 사이버맨이 되었다는 생각을 밝혀냈습니다. 4장에서 저는 현대 작업 관행, 작업 시간, 기술 유물의 중요성에 대한 복잡한 얽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e-메일 트래픽의 엄청난 양도 업무 속도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확대하지만 그 자체로 야기하지 않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 기기에 손이 많이 갑니다.

This is not to deny the distinctive materiality of digital technologies and its powerful effect on organizational practices. The speed of e- mail, for example, promotes constant connectivity and instant response. This technical affordance has agency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naturalization or taken- for- grantedness of this practice.

이는 디지털 기술의 고유한 중요성과 디지털 기술이 조직 업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의 속도는 지속적인 연결과 즉각적인 응답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기술 제공은 이 관행을 귀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is that there is a tendency among advocates of shorter working hours to presume that quality personal time entails escape from the encroachment of electronic paraphernalia. But in my view, digitalization provoke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standard terms of the work- life balance debate, which pitches work against life and public against private. ICTs make possible new combinations of previously distinct temporal zones, new forms of mediated intimacy, and new ways of doing family. Mediated relationships have not supplanted embodied mutual presence, but rather exist alongside them.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being in the presence of others at a distance can invigorate and intensify communication, rather than detract from it. Contrary to much of the hype, we may well have more time to talk.

노동시간 단축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질의 개인 시간이 전자 부재의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디지털화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토론의 표준 용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합니다. 이 논쟁은 사생활과 공공의 삶에 대해 그리고 사적인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ICT는 이전에 구별되었던 시간적 영역, 새로운 형태의 중재적 친밀감, 그리고 새로운 가족 활동 방법의 새로운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재된 관계는 상호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현상학적 경험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보다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과대 광고와는 달리, 우리는 대화할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Digital technologies, then, must be understood as more than simply tools for exchanging data and coordinating human interaction. They do not just make existing forms of social action more efficient. As material objects or sociotechnical assemblages, they reconfigure the temporal and spatial dynamics of how people think and act. People may welcome the permeability of these boundaries for the flexibility and control it offers rather than primarily fearing work intrusion into leisure time.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교환하고 인간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 이상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기존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객체나 사회기술적 조립체로서, 그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역학을 재구성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여가 시간에 대한 업무 침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통제에 대한 이러한 경계의 투과성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The important questions for a politics of time, in our age, might have less to do with a sense of harriedness or the mixture of work and home life than with a hierarchal time culture in which status and pay measure the value of a person’s time. Being busy is valorized, while having too much time on one’s hands signifies failure. Temporal disparities are closely mapped to social inequalities, as exemplified by the demonization of the unemployed. The democratization of time would lead to a very different social order, one in which time priorities and restraints are equitably shouldered. I would not be the first to suggest that “the concept that everyone’s time is equally valuable is truly revolutionary.” ject of many jokes that express our frustration at being at the mercy of a technology that is saving someone else’s time and money at our expense. Consumption in an instant society can, at times, involve a temporality of remarkable slowness.

시간의 정치를 위한 중요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에, 지위와 급여가 한 사람의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계층적 시간 문화보다, 조마조마하거나 일과 가정 생활의 혼합과 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용맹스러운 반면, 손에 너무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불균형은 실업자들의 악마화에 의해 예시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민주화는 시간의 우선순위와 구속이 공평하게 요구되는 매우 다른 사회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개념은 정말 혁명적"이라고 제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기술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좌절감을 표현하는 많은 농담들이죠. 즉석 사회에서의 소비는 때때로 놀랄 만큼 느린 일시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The ascribed nexus between high- tech and efficiency is often belied even in conventional, in- the- flesh shopping. Not long ago I visited the Apple store in central London to repair my iPod. As it is over five years old, I was firmly informed that no spare parts existed for such aged machines, that it was redundant and I would have to buy a new one. OK, I said, bring me the new model in any color and I will buy it— where is the cashier? I look around but there was nowhere in the shop to purchase a product. Apple policy is a “personalized” service, so you have to wait for someone to serve you individually. In fact, it took ages. When I inquired as to why there were no such counters, I was told that the company had dispensed with them in order to avoid the appearance of long lines! In their attempt to abolish the cardinal sin of waiting, the company had inadvertently designed a slow service as the condition for purchasing the latest, fastest product. Slowness as a common condition of contemporary urban life is rarely diagnosed.

첨단 기술과 효율성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실제 쇼핑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아이팟을 수리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에 있는 애플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된 기계를 위한 예비 부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이 중복되어 새 것을 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색이든 새 모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살게요. 계산원이 어디 있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매장에 제품을 살 곳이 없었습니다. 애플 정책은 "개인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카운터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긴 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사에서 분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기본적인 죄악을 폐지하려는 그들의 시도로, 회사는 부주의하게 가장 최신의 가장 빠른 제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느린 서비스를 고안해 냈습니다. 현대 도시 생활의 일반적인 조건으로서의 느림은 거의 진단되지 않습니다.

The rise of the self- service economy, whereby more and more of the work of consumption is transferred onto consumers, was first theorized in the 1970s. ATMs, self- service gas stations, and vending machines were spreading and promoted as being time saving for consumers. More recently, self- service tills at supermarkets and preprepared meals are on the increase. No one could have anticipated the huge growth of online shopping, let alone 3D automated manufacturing or self- driving cars. This trend is being taken to new heights by the world of Big Data that promises a future of frictionless, continuous shopping. As we are tracked and fed information on our wants and needs from online tools, services and apps, we are assured that our consumption will only get more streamlined and efficient. We will no longer need to search for anything since we are perpetually monitored,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sent to us on the basis of perceived need.

소비의 업무가 소비자에게 점점 더 많이 전달되는 셀프 서비스 경제의 상승은 1970년대에 처음 이론화되었습니다. ATM, 셀프 서비스 주유소, 자동판매기 등은 소비자들에게 시간 절약이라는 의미로 보급되고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마켓의 셀프 서비스 틸과 미리 준비된 식사가 늘고 있습니다. 3D 자동 제조나 자가 주행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 쇼핑의 엄청난 성장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무마찰, 지속적인 쇼핑의 미래를 약속하는 빅 데이터의 세계에 의해 새로운 정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툴, 서비스 및 앱에서 원하는 사항과 요구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제공하므로 소비 효율성이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식된 필요성에 기초하여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검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mazon, Google, and Wal- Mart are all moving toward same- day shipping, as people become accustomed to instant gratification, where you just type something on your phone and the next thing you know, you have what you need. This will soon include Sunday deliveries, boasts Amazon’s Jeff Bezos, with the aid of drones. Dinner kits are also taking off. E- commerce businesses, such as Plated, will buy, measure, cut, chill, box, and ship every ingredient for a meal to your door. All the customer has to do is to order online. As one of their spokesmen put it: “Food is one of the last pieces of daily life that is still analog. We want to bring it into the digital age.”

아마존, 구글, 월마트 모두 당일 배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인 만족감에 익숙해짐에 따라, 휴대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일요일 배달이 포함될 것이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드론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디너 키트도 이륙합니다. Plated와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은 식사의 모든 재료를 구입, 측정, 절단, 냉각, 박스, 배송할 것입니다. 고객은 온라인 주문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대변인 중 한 명이 말했듯이: "음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일상 생활의 마지막 조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시대로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Ironically, some of these futuristic developments hark back to the past.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household deliveries and mailorder catalogs were common. As I outlined in chapter 5,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ome and the advent of the car, paradoxically, increased shopping time. For all the e- commerce today, shopping and domestic travel times show a rising trend. Even sophisticated domestic appliances, such as the washing machine, have been more successful in time shifting and raising standards than in reducing housework. Rather than compressing labor time, such machines radically alter expectations of comfort, cleanliness, and convenience. Routine household work is consequently still time- consuming, and that is why the cash- rich, time-poor employ paid domestic workers and fast food outlets flourish on busy main streets.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미래적 발전들 중 일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동안, 가정 배달과 우편 주문 카탈로그는 흔했습니다. 제가 5장에서 요약했듯이, 가정에서의 산업 혁명과 자동차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쇼핑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전자 상거래에서 쇼핑과 국내 여행 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탁기 등 정교한 가전제품도 집안일을 줄이는 것보다 시간 이동과 기준 제고에 더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편안함, 청결함, 편의성에 대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일상적인 집안일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것이 바로 현금이 많고, 시간이 부족한 유급 가사 노동자들과 패스트 푸드 아울렛이 번잡한 중심가에서 번창하는 이유이다.

In the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change and temporality is always dialectical: the simultaneous production of fast time spaces with those of remarkable slowness. Speed and slow down have always coexisted in modernity, although the meanings and values attached to them have shifted.

결국, 기술적 변화와 일시성의 관계는 항상 변증법적입니다. 빠른 시간 공간의 동시 생산과 현저한 느린 시간의 동시 생산입니다. 속도와 감속은 항상 현대적으로 공존해왔지만, 그것들에 첨부된 의미와 가치는 이동했습니다.

Notwithstanding this recursive interplay, the predominant emphasis in social and cultural theory is on the acceleration of everything. As outlined in chapter 1, this new temporality is variously described as one of immediacy, instantaneity, simultaneity, timelessness, chronoscopic, or network time. Ben Agger has gone so far as to label it iTime, a manic, compulsive, deeply compressed time “weighing heavily on the person who always has too much to do, not enough time to do it.”

이러한 반복적인 상호 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문화 이론에서 주된 강조점은 모든 것의 가속화에 있습니다. 1장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 새로운 일시성은 신속성, 즉석성, 동시성, 무시간성, 연대기 또는 네트워크 시간의 하나로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Ben Agger는 그것을 "항상 할 일이 너무 많고, 충분한 시간이 없는,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매니큐어, 강박적이고, 깊이 압축된 시간인 iTime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For John Tomlinson, too, this telemediated culture is a novel historical phenomenon, a unique way of being.14 “Immediacy”— the combination of fast capitalism and the saturation of the everyday by media technologies— changes the nature of consumer culture entirely. It is characterized by instantaneity, proximity, and expectations of immediacy that are linked to “assumptions of instant delivery and effortlessly achievable abundance.” Accordingly, “delivery” itself rather than satisfaction becomes the telos of consumption; “something new is always on the way and so it is not necessary— nor does it do— to invest too much into the thing of the moment.” While Tomlinson highlights the usual critiques of accelerating consumption, such as debt, waste, and maintenance of the capitalist status quo, his real concern is that the culture of immediacy is incapable of generating “new imaginations of the good life.”

존 톰린슨에게도 이러한 순간순응된 문화는 참신한 역사적 현상으로, 존재의 독특한 방식입니다.14 "즉시성" 즉 빠른 자본주의와 미디어 기술에 의한 일상의 포화상태의 결합은 소비자 문화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즉석성, 근접성, 즉석성에 대한 기대감 등이 특징이며, 이는 "즉석 전달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풍요의 추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보다는 "배달" 그 자체가 소비의 텔로(telos)가 됩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톰린슨은 부채, 낭비, 자본주의 현상 유지와 같은 소비 가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강조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신속성의 문화가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Slow Living in Modern Times

It cannot go unremarked that, alongside the reverence accorded to a hyperkinetic, digitally fueled pace, the idea of a slower life is gaining appeal. Recent decades have spawned several slow- living initiatives, such as the Slow Food movement, Slow Cities (CittaSlow), the Society for the Deceleration of Time, the Simple Living Network, and various forms of meditation and mindfulness. Indeed, there has been considerable growth of the “mind business” within large corporations.15 There is even a manifesto for Slow Science, calling for scientists to proceed with less haste, taking time to think, to read, and to fail.16 Common practices associated with slow living include cooking and sharing a meal instead of buying fast food, growing fruit and vegetables locally, and cycling or walking instead of driving. These initiatives deliberately posit slowness or deceleration as a subversion of the cultural orthodoxy of speed.

현대는 천천히 살아요

디지털에너지를 더하는 초유행적 속도에 맞춰 경건한 경건함과 더불어 더 느린 삶에 대한 생각이 매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슬로 푸드 운동, 슬로 시티, 시간의 감속을 위한 사회, 단순한 생활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명상 같은 몇 가지 슬로 라이프 이니셔티브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 내에서 "마인드 비즈니스"의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15 슬로우 사이언스(Slow Science)에 대한 선언문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덜 서두르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읽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실패할 것을 요구합니다.16 느린 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행은 패스트푸드를 사는 대신 요리하고, 식사를 같이 하며, 성장을 포함합니다.과일과 채소를 국소적으로 섭취하고, 운전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걷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의도적으로 느림이나 감속을 속도의 문화적 정설의 전복으로 간주합니다.

Clearly, the resignification of slowness as a life- enhancing quality has to be understood as a response to the acceleration society. As we saw in chapter 2, the experience of slowness emerged as a positive value in response to the velocity of newly emerging machines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shock induced by the speed of railway travel, for instance, provoked a renewed perspective on earlier modes of travel, such that walking could be redefined as offering leisure and heightened sensory pleasure. Slowness became recognized as a desirable or virtuous quality when it became a choice, rather than the only option, and when speed could be associated with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alienation, stress, or desensitizat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slowness could become the basis of formulating a critique of modernity: “speed created slowness, as it were."

분명히, 느린 것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품질로 체념하는 것은 가속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느림의 경험은 19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부상하는 기계들의 속도에 대응하여 긍정적인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여행의 속도에 의해 유발된 충격은 이전의 여행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는 여가를 제공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느림이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속도가 소외, 스트레스, 감퇴 등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을 때 바람직하거나 덕망 있는 자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느림보라는 것이 근대성에 대한 비평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The Slow Food movement is worth considering briefly for the manner in which it treats time. Founded by the Italian food writer Carlo Petrini in response to the prospect of a McDonald’s restaurant opening in the heart of Rome, the movement focuses on the contrast between “slow” and “fast” food in an attempt to demarcate a time, as much as a practice, distinct from the pace and pressures of work. It rejects globalized technologies, as well as the homogeneity and corporate greed associated with fast food production, and instead emphasizes the values associated with enjoyment, taste, authenticity, connectedness, tranquility, and community. Patterns of conviviality centered on eating slowly are celebrated as symbolic of making time for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The assumption is that embedded within the time- honored practices of food preparation, rest, and hospitality lies a knowledge of mindful living.

슬로우 푸드 운동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잠깐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음식 작가 카를로 페트리니가 로마의 중심부에 맥도날드 식당이 문을 열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여 설립한 이 운동은 일의 속도와 압박과는 구별되는, 관행만큼이나 시간을 구분하려는 시도로서 "느린" 음식과 "빠른" 음식의 대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패스트푸드 생산과 관련된 동질성과 기업 욕심은 물론 세계화된 기술을 거부하고, 대신 즐거움, 맛, 진정성, 연결성, 평온, 공동체성과 관련된 가치를 강조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경쾌함의 패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상징적인 것으로 기념됩니다. 그 가정은 음식 준비, 휴식, 그리고 환대라는 오래된 관행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 diversity of the movement makes it difficult to pin down the politics of slowness. In general, the Leftist origins of many participants mitigate conservative nostalgia for a lost organic community. Even so, a binary conception of slow as pleasure and speed as enslavement permeates their philosophy, as expressed in their manifesto: “Our century, which began and has developed under the insignia of industrial civilization, first invented the machine and then took it as its life model. We are enslaved by speed and have all succumbed to the same insidious virus: Fast Life.”18 Notably, however, in place of the fast life, slow food offers not only the pleasure of the table— taste, flavors, regionalism, locatedness— but also international exchange. Slowness is conceived of both as an individual, private subjectivity of “self- artistry,” and as a social and political strategy for the betterment of society.

운동의 다양성 때문에 느림의 정치를 꼬집기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의 좌파적 기원은 잃어버린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한 보수적인 향수를 완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언에 표현된 대로, 쾌락과 속도만큼 느리다는 이항적인 개념은 그들의 철학에 스며들었습니다: "산업문명의 휘장 아래 시작되고 발전한 우리의 세기는 처음에 기계를 발명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의해 노예가 되었고 모두 같은 음흉한 바이러스에 굴복했습니다. 패스트 라이프"18 그러나 특히 패스트 라이프 대신 슬로 푸드는 맛, 맛, 지역주의, 위치 등 식탁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도 제공합니다. 느림은 "자기 예술성"의 개인적, 사적인 주관성과 사회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전략 둘 다로 간주됩니다.

The shortcomings of the Slow Food movement are well rehearsed.19 To mention a few: there is a tension between slowness as a realm of the elite (mostly Western) individual and the need to share the pleasures of slowness equitably;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movement that is itself opposed to globalization; a reliance on old discourses of pastoral versus high- density city life; and whether slow conviviality rests on a traditional domestic division of labor. More broadly, a social movement rooted in a politics of consumption cannot fully engage with the inequalities in time sovereignty that result from money, status, and power.

슬로우 푸드 운동의 단점은 잘 리허설을 하고 있다.19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엘리트(대부분 서양) 개인의 영역으로서의 느림과 공평하게 느림의 즐거움을 공유할 필요성 사이에 긴장이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필요성; 목회자의 오래된 담론에 대한 의존성. 고밀도 도시 생활과 비교해서, 그리고 느린 경쾌함이 전통적인 가사 노동 분업에 놓여 있는지 여부이다. 보다 넓게 보면, 소비의 정치에 뿌리를 둔 사회운동은 돈과 지위, 권력에 기인하는 시간주권의 불평등과 완전히 관련될 수 없습니다.

Shortcomings aside, such movements do open up a political space for questioning our obsession with speed as a virtue in and of itself. In defiance of the dominant time regime, a collective culture of deceleration would foster an alternative consumption of time— not just in the sense of more time, but more meaningful, deliberate and pleasurable time. As Wendy Parkins and Geoffrey Craig conclude, “The conscious cultivation of slowness may be a salutary reminder of how our rhythms and routines have the potential to either challenge or perpetuate the disaffection of everyday life.” By placing a fluid and dynamic understanding of time at the core of its philosophy, the Slow Food movement provides an interesting case study for examining how a more time- enriched lifestyle might be narrated.

단점은 제쳐두고, 그러한 움직임은 속도 자체에 대한 미덕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의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지배적인 시간 제도를 무시하고, 집단적인 감속 문화는 시간의 대체 소비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단지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계획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웬디 파킨스와 제프리 크레이그는 결론에 이르기를, "느림이라는 의식적인 경작은 우리의 리듬과 일상이 어떻게 일상의 불감증에 도전하거나 영구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유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대한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이해를 그것의 철학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슬로우 푸드 운동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하는 생활방식이 어떻게 서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As we move toward the final thoughts of this book, let me remind you why I would be reluctant to embrace slow living. Firstly, we cannot in fact choose between fast and slow, technology and nature. These dualisms exist and only acquire meaning in relation to each other. A fast/ slow dichotomy cannot hope to capture the simultaneous coexistence of multiple temporalities that characterizes the experience of modernity. Once we recognize this, we can begin to reimagine hybrid sociomaterial assemblages or networks for enacting different times in an intensely technological world.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생각을 향해 나아갈 때, 제가 왜 느린 삶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술과 자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존재하며 서로에 대한 의미만을 획득합니다. 빠른/느린 이분법으로는 현대의 경험을 특징짓는 복수의 시간적 공존을 동시에 포착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기술적인 세계에서 다양한 시간을 제정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사회 물질 조립체나 네트워크를 재구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It follows, second, that a wholesale dismissal of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as necessarily spurring on acceleration is misconceived. Even eating at a McDonald’s restaurant can, in some contexts, be recuperated as a positive locale for slow eating, conviviality, and leisure. High- tech devices and systems are also great sources of pleasure and creativity. The positive possibilities for new kinds of time they generate should not be denied. Indeed, making more of time, preserving slow zones, actually requires more technological innovation.

둘째,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가 가속화에 필수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맥도날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 조차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느리게 먹고, 쾌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장소로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기와 시스템은 또한 즐거움과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시간을 생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더 많이 벌고, 느린 구역을 보존하는 것은 사실 더 많은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New Technologies for Emergent Times

To argue, as I have in this book, that there is no temporal logic inherent in digital technologies is not to claim that technology is neutral or that the technical properties of objects do not matter. A sociotechnical lens on the sociology of time lays bare the highly specific materialities that make up the global network society. It demonstrates that the design and capabilities of the apparatus that become available to us, the architecture of infrastructures, have huge consequences. This has never been more so than now when every aspect of our lives is touch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비상시를 위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했듯이 디지털 기술에 내재된 시간적 논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술이 중립적이거나 사물의 기술적 특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사회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렌즈는 세계 네트워크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인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장비의 설계와 기능, 즉 인프라의 아키텍처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만져질 때, 이것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랬습니다.

That some technologies are favored and developed while others languish neglected operationalizes the world in particular ways, obliging us to live accordingly. It closes off some options while opening up others. Understanding this dynamic is at the core of my thesis. To quote from Susan Douglas’s social history of the radio: “Machines, of course, do not make history by themselves. But some kinds of machines help make different kinds of histories and different kinds of people than others." We build our present and dream our future with and through tools and techniques and these visions are symbiotically reflected in them. So what forces are shaping technology today and what visions of the future are we being offered by the engineers of Silicon Valley?

어떤 기술들은 선호되고 발전되는 반면, 다른 기술들은 무시당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술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을 여는 동안 일부 옵션은 닫힙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수전 더글라스의 라디오 사회사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기계는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계들은 다른 종류의 역사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는 도구와 기술로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공생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술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실리콘 밸리의 엔지니어들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What were once the stuff of science fiction are presented in daily media as if their realiz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is near future is one peopled by robots and posthuman subjects with brains, bodies, and clothing enhanced by technoscience. According to the geeks of Silicon Valley, we are on evolutionary path to the next stage of a morphed cyborgian existence. Domestic robots feature prominently in these futuristic discourses. Electronic gadgets will clean floors, wash windows, scrub gutters, and even prepare healthy meals. Herb (the home exploring robot butler) developed by Carnegie Mellon University’s Robotics Institute, for example, with two arms and a head- like box housing cameras and sensors, even speaks like a butler should, declaring in a Jeeves- like English accent, “I wa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household duties. One day I will help humans.” (This figure is especially appealing given the concurrent return of the real butler or manservant for the super- rich.)

한때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였던 것들이 마치 그들의 깨달음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매일 매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는 로봇과 인간 후기 피실험자에 의해 뇌, 신체,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해 강화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괴짜들에 따르면, 우리는 모피드 사이보르기안 존재의 다음 단계로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용 로봇은 이러한 미래적 담론에 두드러지게 특징지어집니다. 전자 제품들은 바닥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고, 내장을 문질러 닦고, 심지어 건강한 식사까지 준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봇 연구소에서 개발한 로봇 집사 허브는 두 개의 팔과 머리 같은 박스 하우징 카메라와 센서를 가지고 집사가 해야 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국식 억양처럼, "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언젠가는 인간을 돕겠습니다.(이 수치는 초부자들을 위한 진짜 집사나 하인의 동시 복귀를 고려할 때 특히 매력적입니다.)

In The New Digital Age, according to Google’s Eric Schmidt and Jared Cohen, you will be roused by the aroma of freshly brewed coffee, with room temperature, humidity, music, and lighting all operating automatically, a gentle back massage administered by your high- tech bed that also guarantees a good night’s sleep by measuring your REM cycle.23 Your seamlessly interchangeable devices, some wearable, are all lightweight and incredibly fast and powerful. To paraphrase: the resulting gains i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ill be profound. By relying on these integrated systems, we’ll be able to use our time more effectively each day— whether that means having a “deep think,” spending more time preparing for an important presentation or guaranteeing that a parent can attend his or her child’s football match without distraction. And, of course, the self- driving car will deliver you to work while you work!

구글의 에릭 슈미트, 재러드 코헨에 따르면, 여러분은 갓 끓인 커피의 향기에 흥분하게 될 것이며, 상온, 습도, 음악, 그리고 모든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첨단 기술 침대가 관리하는 부드러운 등 마사지로 여러분의 REM 사이클을 측정함으로써 숙면을 보장합니다.23 원활한 상호 교환이 가능한 일부 웨어러블 기기는 모두 경량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합니다. 비유하자면, 효율성과 생산성의 결과로 얻는 이득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부모가 방해받지 않고 자녀의 축구 경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매일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는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여러분을 일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These prospective technological scenarios seem inexhaustible and figure ever more powerfully in our culture. Time was when a new consumer durable had to be marketed with conventional accompanying advertisements, while now the latest versions of smartphones are newsworthy in themselves. They are not only reported in the financial pages but are headline news framing and representing tales of individual empowerment. The “i” word is practically an intoxicant. The topic of technology is in fact by far the best predictor of the popularity of news items on Twitter.

이러한 미래의 기술 시나리오는 무궁무진해 보이며 우리 문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새로운 소비자 내구성이 있는 새로운 소비자용 광고가 기존의 동반 광고와 함께 출시되어야 했던 시기이고, 이제 최신 버전의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것들은 재무 페이지에 보도될 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뉴스 프레임과 개인의 권한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i"라는 단어는 사실상 도취자이다. 기술의 주제는 사실 트위터에서 뉴스 아이템의 인기에 대한 최고의 예측자이다.

At one level, all this speculative hyperbole has an obvious function: these (mostly) guys are promoting a benign future in which their own products feature heavily. They are transparently selling a particular vision in which technology will solve all our ills, including the time crunch. As I write, Big Data is the tool du jour for tech- savvy companies: the irresistible technological fix or answer to all social problems.25 This idea, that we live in a technocracy in which technical rationality both defines political problems and provides the solution, has a long lineage. Frankfurt School writers like Herbert Marcuse and Jürgen Habermas were wise to it before the dawn of the computer.26 Such depictions of the “proximate future” are far from innocent. They are being mobilized as a resource to influence the direction of sociotechnical innovation in the present. Some thought-provoking sociology is exploring how patterns of hope, promise, and hype— the “dynamics of expectations”— are constructed, and the performative role they play in actually shaping research agendas.

한 차원에서는, 이 모든 추측성 과장된 것들은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남성들은 그들 자신의 제품이 크게 특징지어지는 긍정적인 미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시간 경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을 투명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따르면, 빅 데이터는 기술에 정통한 기업들에게 도구입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기술적 해결책이나 해답입니다.25 이 아이디어는 기술적 합리성이 정치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테크노크라시(Technography)에 살고 있습니다. Herbert Marcuse와 Jürgen Hubermas와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교 작가들은 컴퓨터의 동이 트기 전에 그것에 현명했습니다.26 그러한 "잠재적인 미래"에 대한 묘사는 무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현재 사회기술 혁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생각을 유발하는 사회학에서는 희망, 약속, 과대 광고의 패턴, 즉 "기대의 역동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연구 의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Perhaps less obvious than the marketing ploys of the technoevangelists is the extent to which speed itself has become the ultimate rationale for technical innovation. This in turn purveys a distorted model of the relationalities between time,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Technologies change all the tim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echnical change is always inventive.

아마도 테크노에반젤리스트들의 마케팅 전략보다 덜 분명한 것은 속도 자체가 기술 혁신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간, 기술,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왜곡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항상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변화가 항상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In The Mantra of Efficiency, the historian Jennifer Karns Alexander traces how the modern orthodoxy that “all things should act efficiently” became dominant in Western culture. “Good” technological design is efficient, it is about making things work, effecting control over situations and events. This is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contemporary emphasis on quantifiable productivity and associated fears of waste, especially the waste of time.”28 In other words, technological inventiveness is associated with making us more efficient in the sense of being economical with time.

<효율성의 만트라>에서 역사학자 제니퍼 칸스 알렉산더는 서양 문화에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현대적 정통성이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좋은" 기술 설계는 효율적인 것이며,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특히 수량화할 수 있는 생산성과 폐기물, 특히 시간 낭비에 대한 현대적 강조에서 두드러집니다."28 다시 말하면, 기술적 창의성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This instrumental philosophy of maximizing efficiency is at the heart of engineering. According to this logic, automation is the perfect solution because human “interference” is a potential source of error and should be eliminated. The latest, fastest, most automated systems appear as objectively the best, rather than as the congealed product of particular localized choices, histories, ideas, technical instruments, and materials.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기악철학은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동화는 인간의 "간섭"이 잠재적인 오류 원인이고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른 최신 시스템은 특정 지역화된 선택, 역사, 아이디어, 기술 기기 및 자료의 결합 제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최고로 보입니다.

Take something we rarely think about, searching the web. We interface with IT apparatus as if it was immaterial, screens providing neutral, value- free information. The speed of Google’s search engine so enthralls us that we seldom reflect on the fact that it favors some content over others. Nor are we alert to the way that entering a search term into Google triggers an instant auction that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advertisements appear.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all- important first page of search results. What matters here, the way power is exercised, is in what is excluded— the vast number of relevant websites that we do not see.

웹을 검색하면서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중립적이고 가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스크린과 접촉합니다. 구글의 검색엔진의 속도는 우리를 매우 매혹적이어서 우리는 구글이 다른 콘텐츠보다 어떤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습니다.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가 나타나는 순서를 결정하는 즉석 경매를 유발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검색 결과의 중요한 첫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워가 행사되는 방식입니다. 배제되는 것,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관련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It used to be the case (until Google changed the results) that a search for the phrase, “she invented,” would return the query, “Did you mean “he invented?”.” As Google explained, this “correctly” reflects past searches, in that over the entire corpus of the web the word “invented” is preceded by “he” much more often than “she.” Google’s algorithm recognized this— and presumed it meant the first search query was merely a typographical error. Thu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world’s greatest inventors are male presents itself as factual. We could have more diverse search engine technology, running different algorithms, instead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key filter for most web users.30 This would be much slower. But might it be more efficient in the sense of acknowledging the difference between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Might the articles that a computer program quickly tells you are “popular” on the Internet not necessarily be the same as those that are actually worth reading?

구글이 "그녀가 발명했다"는 문구를 검색하면 "그가 발명했다"는 문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설명했듯이, 이 "정확히"는 과거 검색을 반영합니다. 웹 전체 말뭉치에서 "그녀"보다 "발명했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주 "그녀"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이를 인지했고, 첫 번째 검색 쿼리는 단지 인쇄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남성이라는 통념은 사실적인 것으로 그 자체를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웹 사용자들을 위한 키 필터의 표준화가 아닌 다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더 다양한 검색 엔진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30 이것은 훨씬 더 느릴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정보, 지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알려주는 기사들은 실제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들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닐까요?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software algorithms are not impartial. Different software embeds different philosophies, and these philosophies, as they become ubiquitous, become invisible. Code is written by people, it contains inferences and assumptions and embodies certain human values and biases. Indeed, the surface structure of flexibility and freedom, heralded by computing, is undergirded by a rigid infrastructure of legal and economics protocols. Software systems shape output— computer-generated predictions, recommendations, and simulations. What appears to be efficient, the constant upgrading of computer software and hardware packages, “are instances of a restrictive strategy, locking users into existing configurations producing enforced obsolescence, reproducing the contours of the existing technological zone in a trivially ‘new’ form.” The flip side of accelerated novelty production, the continual simulation of the new, is a mounting pile of trash.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철학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코드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고, 추론과 가정을 포함하고 특정한 인간의 가치와 편견을 구체화합니다. 실제로, 컴퓨팅에 의해 예고되는 유연성과 자유라는 표면 구조는 법률 및 경제 프로토콜의 경직된 인프라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생성된 예측, 권장 사항 및 시뮬레이션과 같은 출력을 형성합니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패키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이다. "사용자를 기존 구성에 고정시켜 강제적인 노후화를 초래하고 기존의 기술 영역의 윤곽선을 사소한 '새로운' 형태로 재현하는 제한적 전략의 예이다." 새로운 생산의 가속화와 새로운 것의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But this need not be the case. Jonathan Sterne, for example, imagines a company that took its time developing a computer that could last, could be easily updated, repaired, and upgraded, was easy to learn and use, worked well with other platforms, and that was less environmentally hazardous when it did finally decompose. This would be a “convivial” tool in Ivan Illich’s sense: ease of use, flexibility in implementatio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and ease of integration into truly democratic forms of social life. Instead, computers are designed to become obsolete after a short period of use. Within the occupational ideology of computer engineering, Moore’s law is “less of a law of computer evolution than it is a fantasy the industry wishes to uphold,” as a high rate of machine turnover drives exponential profit.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나단 스턴은 지속적이고, 쉽게 업데이트되고, 수리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학습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다른 플랫폼에서 잘 작동하고, 마침내 분해되었을 때 환경적으로 덜 위험했던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들인 회사를 상상합니다. 이것은 이반 일리히의 감각에 있어서 "양립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용의 용이성, 구현의 유연성,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사회생활의 진정한 민주적 형태로의 통합의 용이성. 대신, 컴퓨터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쓸모없게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라는 직업 이념 안에서, 무어의 법칙은 높은 기계 회전율이 기하급수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산업계가 유지하고자 하는 환상보다 컴퓨터 진화의 법칙에 덜합니다"라고 말한다.

To be sure, we have been all too ready to conflate the speed of technical innovation with inventiveness. On the contrary, rapid technological change can actually be conservative, maintaining or solidifying existing social arrangements. Its very speed may occur in order to block and stifle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trajectories. As other STS scholars argue, inventiveness is not about the novelty of artifacts in themselves, but about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aligned with inventive ways of thinking and doing and configuring and reconfiguring relations with other actors.” Genuine inventiveness, then, can occur when the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is slow, or in places and at times least expected.

확실히, 우리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창의성과 혼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급속한 기술적 변화는 실제로 보수적일 수 있고,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거나 공고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는 대체 궤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STS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의성은 그 자체로 유물의 참신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를 창조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하고 구성하며 재구성하는" 방법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창의성은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 또는 장소와 최소한 예상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If inventiveness is about challenging our common- sense ways of doing things, questioning the assumptions that permeate our political discourse, and creat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present, we leave engineering to the engineers at our peril. I have written elsewhere about the cultur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where “the masculine workplace culture of passionate virtuosity, typified by hacker- style work, epitomizes a world of mastery, individualism and non- sensuality.” Being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a computer can be both a substitute for, and a refuge from, the much more uncertain and messy relationships that characterize social life. It is an environment that thwarts the imaginations of technology designers, ignoring the needs of those who do not fit or conform to their own paradigm of normality.36 One might venture that this mindset is ever more influential in our digital age in which the world’s richest companies are predominantly engineering companies: Microsoft, Apple, Google, Facebook, and Twitter.

만약 창의성이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 방식에 도전하고, 우리의 정치적 담론에 스며드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공학을 우리의 위험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엔지니어링과 컴퓨팅의 문화에 대해 다른 곳에서 글을 썼는데, 이 문화는 "해커 스타일의 작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열정적인 기교의 남성적인 직장 문화는 마스터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비관능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생활을 특징짓는 훨씬 더 불확실하고 지저분한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기술 설계자들의 상상을 좌절시키는 환경입니다. 자신의 정규성 패러다임에 맞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36 이러한 사고방식이 세계 최고 부호 기업들이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인 우리의 디지털 시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pple, Google, Facebook 및 Twitter입니다.

My point here is not about the predisposition of individual engineers so much as the institutional culture they inhabit. Much technoscientific innovation originates in either the military or in corporate business environments, where the expertise and ingenuity that is valued is directed toward tackling certain kinds of soluble problems.

제 요점은 엔지니어가 거주하는 제도적 문화만큼 엔지니어가 개인에 대한 성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술 혁신은 군사 또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전문 지식과 독창성은 특정 유형의 해결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Take a radical innovation for saving time, such as Google’s driverless car. That a car can drive itself without crashing is a remarkable achievement of mapping software. It is economical with time, in that you can get on with work while being driven and don’t need to employ a chauffeur to achieve this efficiency. However, as Evgeny Morozov rightly points out, there may be unintended consequences: “Would self- driving cars result in inferior public transport as more people took up driving? Would it lead to even greater suburban sprawl as, now they no longer had to drive, people could do email during their commute and thus would tolerate spending more time in the car?” One might add that little thought has been given to gendered patterns of travel, the intricate map of itineraries that thread through the daily lives of mothers. Car travel is not wholly instrumental. It may be an important time and space for parentchild relationships, such as on the daily school run. As the driverless car becomes more reliable, parents will surely succumb to the temptation to send their children off in it while they get on with other tasks.

Google의 무인 자동차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차가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매핑의 놀라운 성과이다. 운전 중에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Evgeny Morozov 옳게 지적했듯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대중 교통을 열악하게 만들까요? 이제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출퇴근 중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차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교외 지역이 더 무질서하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여행의 복잡한 패턴, 엄마의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복잡한 여행지도에 대한 생각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이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일 학교 운영과 같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부모들은 분명 아이들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그 차를 타고 떠나보내고 싶은 유혹에 굴복할 것입니다.

But in relation to saving time, the self- driving car presents a narrow model of change, even in terms of transport. The car is more than a machine for mobility, it is a sociotechnical system that locks people into certain social habits and practices. Shifting these requires innovating in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arrangements that embed them. In fact, cars are in decline in the West, and travel activity has reached a plateau. Many forecast alternative scenarios of electric cars based not on individual ownership but on access.38 They cite new vehicle- sharing systems, the increasing interest of car manufacturers in experimenting with pay- as- you- go schemes, and the mass development of electric bikes in China. What is at stake here is commuting time. But perhaps long distance travel may become less necessary with hypermobile network communications while refinements to less sophistic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bicycle, increase their appeal. In other words, a more imaginative combination of old and new technologies together with different ownership arrangements might release more time than automating the car.

그러나 시간 절약과 관련하여 자가 주행 차량은 운송 측면에서도 좁은 변화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동차는 이동성을 위한 기계 그 이상이며, 그것은 사람들을 특정한 사회적 습관과 관습에 가두어 두는 사회공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전환하려면 이를 포함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협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자동차가 쇠퇴하고 있고, 여행 활동도 고원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접근에 기반한 전기 자동차의 대안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8 그들은 새로운 차량 공유 시스템, 종량제 실험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심 증가, 중국의 전기 자전거 대량 개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장거리 이동은 하이퍼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으로 인해 덜 필요하게 되는 반면 자전거와 같은 덜 정교한 기술로 세분화하면 그들의 매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서로 다른 소유권 계약과 함께 더 창의적으로 결합하면 자동차를 자동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nthusiasm for the smart kitchen also betrays a belief that automation automatically saves time, regardless of the context. The idea of a kitchen run by super- intelligent machines, like Herb the robot butler, is not radical at all. As we saw in chapter 5, there are limits to how smart a kitchen can be if the home is conceived in terms akin to a rational, orderly, well-functioning machine. Time is treated as a highly individualized activity rather than as an aspect of shared, socially organized activities that are themselves shaped both by institutions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A far more inventive design frame would think outside the kitchen box. It would see beyond the private single- family household to encompass different social arrangements. If the aim were to economize on housework time, it could reorganize the sexual division of domestic labor. It might even collectivize housework in the way envisioned by American feminists like Charlotte Perkins Gilma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스마트 키친에 대한 열정도 맥락에 상관없이 자동화가 자동으로 시간을 절약한다는 믿음을 배반합니다. 로봇 집사 허브처럼 초지능형 기계가 운영하는 부엌이라는 생각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5장에서 보았듯이,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잘 작동되는 기계와 유사한 관점에서 가정을 구상할 경우 부엌이 얼마나 똑똑할 수 있는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기관과 물리적 인프라에 의해 형성되는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조직된 활동의 한 측면이라기 보다는 개인화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훨씬 더 창의적인 디자인 틀은 부엌 박스 밖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혼자 가정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포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노동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사노동의 성적 분열을 재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19세기 후반에 샬롯 퍼킨스 길먼과 같은 미국 페미니스트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ultra high- tech conceptions of conserving personal time have ramifications. They materially shape not only our machines but also our cultural frames, tropes, and metaphors for understanding ourselves. How can we possibly refuse the ensemble of objects that define our world as given, if we are constantly narrated as subjects who are programmed, “hard- wired,” or coded to process information in particular ways? As Lucy Suchman has shown, grand projects in humanoid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erversely limit the potential for altering our cultural imaginaries of the human. They make it much more difficult to locate “the conditions for action and possibilities for intervention in the specificities of mundane sociomaterial assemblages."

문제는 개인 시간을 절약하는 초첨단 기술의 개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틀, 열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은유까지 물질적으로 형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되고, "강경유선"되거나, 코딩된 주제로 끊임없이 내레이션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정의하는 사물의 합주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Lucy Southman이 보여준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인간의 문화적 상상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비뚤게 제한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 물질 조합의 특수성에 개입하기 위한 행동 조건과 가능성"을 찾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To my mind, such projects also reflect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from technoscientific work. (Even the famous MIT Media Lab has a male milieu, as only 20 percent of the faculty are women.41) Mine is not an essentialist argument about innate female values but part of a more general proposition about opening up the processes of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 wider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interests. Time is calibrated by power, and therefore promoting diversity in design would produce entities and interfaces more attuned to those who do not fit the mold of methods oriented to speed. The way ICTs are interpreted and used depends on the tapestry of social relations woven by age, gender, race, class, and other axes of inequality. We should not subsume all the often slow and discordant rhythms of everyday life to the standardized clock time of our technoculture.

내 생각에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또한 기술 과학적인 작업으로부터 여성의 한계화를 반영합니다. (유명한 MIT 미디어 랩조차도 교수진의 20%만이 여성인 만큼 남성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41) 내 것은 선천적인 여성 가치에 대한 필수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기술 리사의 과정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명제의 일부입니다.다양한 사회 집단과 관심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전력에 의해 보정되므로 설계의 다양성을 촉진하면 속도를 지향하는 메서드의 몰드에 맞지 않는 개체와 인터페이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ICT의 해석과 이용방법은 연령, 성별, 인종, 계급, 그리고 불평등의 다른 축에 의해 짜여진 사회관계의 태피스트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느리고 불협화음인 일상 생활의 모든 리듬을 표준화된 우리의 테크노컬쳐의 시계 시간으로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The digital is not a black box, a magic thing that is going to fulfill a vision of the future. It is coproduced with society and mirrors the boundaries of our imagination. Rather like the ways in which people represent themselves on social media, the initial radical promises of cyberspace as a disembodied zone of freedom is belied by clichéd and deeply regressive visual and textual representations. It is new technology reiterating old narratives. What presents itself as novelty and change is often a more concrete expression of the ongoing limits to, and stasis in, our collective social and political aspirations— as these are continually enacted in the distorted distributions of labor, time, power, and other resources.

디지털은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미래의 비전을 충족시킬 마법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공동 제작되고 우리의 상상력의 경계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들 자신을 대변하는 방식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리된 자유 구역으로서의 초기 급진적인 약속은 진부하고 퇴행적인 시각적 그리고 텍스트적인 표현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움과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열망에 대한 지속적인 한계와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노동, 시간, 권력 및 기타 자원의 왜곡된 분배에서 지속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The contemporary imperative of speed is as much a cultural artifact as a material one. We are at a pivotal juncture in the evolution of technology, yet industrial regimes still set the contours of our lives. These traditional timescapes and domains of activity have been subsumed within networked 24/7(always) digital temporalities. The question posed by this book is whether acceleration is an adequate trope for understanding our emerging relationship to time.

속도의 현대적 중요성은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문화적인 유물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화에 있어 중추적인 시점에 와 있지만, 산업체 정권은 여전히 우리 삶의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 범위와 활동 영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24x7(항상) 디지털 시간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해 제기되는 질문은 가속이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트루프인가 하는 것입니다.

Rather than being endemically pressed for time, perhaps we are confused about what time we are living in. Part of the problem may be that the categories of speed and accele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progres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do not provide us with the appropriate language to formulate fresh ideas about how we might leverage the digital infrastructure.

시간에 대한 선천적으로 압박을 받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 헷갈릴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일부는 속도 및 가속도 범주와 진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연관성이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적절한 언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lectronic technologies are integral to our experience of space, time, communication, and consciousness, crystallizing new ways of being, knowing, and doing. They as much reflect our high- speed culture as shape it. If technologies are sites of practice, then sociotechnical orders are not predetermined but are the result of humans and nonhumans coming together to constitute society. The latest technologies can, then, be recruited as a resource in our quest for discretionary time.

전자 기술은 우리의 우주, 시간, 통신, 의식 경험에 필수적이며, 새로운 존재 방식과, 알고, 행동하는 방법을 결정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고속 문화를 형성하는 것만큼 많이 반영합니다. 기술이 실천의 현장이라면, 사회적 질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함께 모여 사회를 형성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은 재량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Too often, however, critical reflections on the impact of digital devices are framed negatively, as if we are victims of a “crisis” that needs correction. Such readings make it difficult to formulate an alternative politics of time (and in particular a gendered time politic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either the emergence of digitalization, or its entanglement with the shifting temporalities of social life.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우리가 마치 시정이 필요한 "위기"의 희생자인 것처럼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판독은 디지털화의 출현 또는 사회생활의 변화하는 시간적 요소와의 관련에서 분리될 수 없는 시간의 대안정치(특히 시간정치)를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There is a disjunction between the cultural allure of speed and the common experience of always feeling rushed, but this can be a source of creative tension. Smart, fast technologies provide an unparalleled opportunity for realizing a more humane and just society, only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busyness is not a function of gadgetry but of the priorities and parameters we ourselves set. Now is the moment to contest the euphorics of speed, and the technological impulse to achieve it, harnessing our inventiveness to take control of our time more of the time.

속도에 대한 문화적 매력과 항상 서두르는 느낌의 공통적인 경험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이것은 창조적인 긴장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빠른 기술은 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바쁜 것은 기계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설정한 우선순위와 매개 변수의 기능이라는 점을 유념하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속도의 행복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기술적 충동에 이의를 제기할 때입니다. 창의력을 활용하여 시간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